

한국의 결혼식은 주로 봄과 가을에 이루어진다.

그 이유는 너무 춥거나 너무 덥지 않은 길일을 택해서 하기 때문이다.

길일을 택하기 위해 절이나 철학관에 가서 날을 잡기도 하고 주로 가족이나 친척, 친구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것이 보통이다.

집안의 부모님과 서로 인사를 하고 택일을 하면,

남자쪽은 주로 따로 가정을 꾸밀 경우 집을 구하고, 여자쪽은 그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 제품 등을 마련한다.

이것은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 모두 준비하며, 결혼식 전날에는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떡 등을 해서 보낸다.

결혼식 날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정도 걸린다.

결혼식이 끝난 뒤는 친척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다.